

Story 18

이 * * 전자컴퓨터공학부 2019년 졸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산직 분야 합격스토리

- ▶ **합격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 ▶ **직무** 전산직
- ▶ **스펙** 학점: 3.34
토익: 940점 / OPIC: IH
- ▶ **인턴** 한국철도공사 체험형 인턴(3개월)
- ▶ **기타** 중앙 음악동아리
전남대학교 청년 TLO
Microsoft MPP Data Science 과정 수강
KPX 유니온 학점과정
- ▶ **자격증** 정보처리기사
정보통신기사
한국사검정능력 2급





대학생활 스토리

약 1년 정도의 취준생활을 겪으면서 느꼈던 것들과 제가 했던 공부법, 면접 준비등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취업스토리를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3학년 2학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취업준비를 했습니다. 공기업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4학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토익과 오픽 성적을 만들었습니다. 또, 틈틈이 **학교 공지사항, 학과 공지사항, 학교 취업/진로 사이트를 광장히 자주 확인**하여 다양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Microsoft MPP과정'과 'KPX유니온 학점과정'** 역시 학과 공지사항을 보고 신청했고, 이 두 경험은 제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면접에서도 잘 활용 할 수 있었습니다.

공지사항을 매일 확인 할 필요는 없습니다. 3~4일에 한번이라도 확인을 한다면 좋은 강의 학습 기회, 실습기회를 가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경험이 되었든 간에 꼭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권에는 지원하지 않을 건데 광주은행 인턴 경험이 도움이 될까요?'와 같은 질문을 저도 수도 없이 많이 했었고, 들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꼭 도전해봐라!'**입니다.

저의 첫 면접은 한국철도공사였습니다. 최종합격은 하지 못했지만 예비번호를 받았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체험형 인턴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3개월이란 시간동안 거창한 일은 하지 않았지만, 저는 다른 면접에 가서 꼭 '공공기관 인턴생활'을 했다고 말합니다. 면접관계 제가 다양한 사회경험을 하는 적극적인 인재인 점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된 **청년TLO** 활동을 하면서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빌딩, 도시재난대응 기술 등에 대해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TLO활동이 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붙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 자기소개서 첫 번째 질문이 'LH 경영 목표 중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으며 입사 후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지, 본인의 주요 직무 역량 및 강점을 기반으로 기술하시오'였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TLO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스마트 시티 관련 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스마트시티 구현 관련 부문과 연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TLO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답변은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나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경험일지라도 나중에 어떤 식으로 활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경험이 되었든 간에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취준기간 동안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취미생활을 갖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취준 기간이 힘든 이유는 끝이 없기 때문이고, 모든 시간을 오롯이 나에게만 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준 기간 동안은 대학 때보다 상대적으로 나에게 집중할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광장히 많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는 취준 기간 동안 앞으로의 취업걱정, 나에 대한 고민 등등 때문에 감정 널뛰기가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학원에 등록해서 일주일에 2시간씩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단 2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창한 취미가 아니라, 독서 30분, 동네 한 바퀴 돌기, 좋아하는 예능 1편 보기 등등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취

미를 가짐으로써 스트레스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스펙〉

1. 기사 자격증

최근에는 쌍 기사를 가진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또는 정보보안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부시절에 통신과목을 좋아했고, 다른 기사 자격증들보다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정보통신기사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마다 정보처리기사와 정보통신기사 중 한 개만 인정해주는 곳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기업의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보안기사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격증을 취득하신다면 당연히 면접에서 꼭 말씀하시길 바랍니다.ㅎㅎ...

저는 현재 정보보안기사 필기까지 합격했는데 '알기서 정보보안기사 필기' 책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자격증 취득하는 것도 한 번 쯤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

2. 외국어

1) 토익

4학년 여름방학 때 처음 시작했습니다. 토익은 단기간에 치열하게 공부해야하는 스펙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취준생활을 하다보면 여러 부분에 신경 써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토익은 미리 준비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2) 오픽

오픽은 계획적으로 준비하면 단기간 내에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본인이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하고, 스토리텔링에 자신 있다면 오픽을 추천 드리고, 스크립트 외우는데 자신 있다고 하면 토익 스피킹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향상 오픽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오픽을 봤습니다. Survey의 경우, 내가 잘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 항목으로만 체크하고, 유튜브를 통해 오픽 관련 시험 팁들, 답변 예시들을 확인 하고 꼭 말로 하는 연습을 열심히 하신다면 꼭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하나를 추천하자면 오픽노잼을 추천 드립니다.

〈NCS 공부〉

4학년 2학기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NCS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작정 스테디에 들어가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학교 내에서 하는 NCS 스테디를 주 3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스테디 덕분에 NCS를 정말 제대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스테디는 지각, 결석, 숙제관련 규칙도 있었고, 커리큘럼이 꽤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덕분에 저는 NCS 공부를 시작한 지 약 2달 만에 한국철도공사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면접기회를 얻을 수 있

었습니다. (아쉽게 한국철도공사 면접에서 최종합격은 하지 못하고, 예비번호를 받아 인턴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스터디는 절대적으로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터디를 권장하는 것은 한 문제에 대해 다른 풀이법을 배울 수 있고, 취업관련 정보 공유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어느 정도 NCS 성적이 나오면 혼자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NCS스터디는 반년정도 하고 나머지 반년정도는 혼자서 했습니다.

NCS 공부를 하면서 시중에 나온 NCS 책들은 다 풀어보았을 정도로 치열하게 공부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괜찮았던 책 몇 권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저는 크게 언어 영역 / 수리·문제해결 영역 / 봉투모의고사로 나누어 공부를 했습니다.

1. 언어영역 : 매3비, 민간경력자채용(민경채) 언어 부분

2. 수리·문제해결 영역 : 비타민 or 석치수의 합격하는 자료해석 계산영역

박문각 NCS 문제해결·자원관리 완전정복

박문각 NCS 수리능력 완전정복

민간경력자채용 자료해석, 상황판단 부분

에듀윌 NCS+PSAT 공기업 수리·문제해결능력 끝장 마스터

3. 봉투모의고사 : 해커스, 위포트, 에듀윌, 박문각 중심으로 풀.

고난도 봉투모의고사를 풀고 싶으면, 박민제의 NCS 고난도 봉투모의고사

(자신이 지원하는 회사 유형 확인하고(PSAT형인지, 모듈형인지, 대행사는 어디인지 확인하고 알맞은 버전 구매)

NCS 스터디를 주 3회 한다는 가정 하에

1. 비타민 or 석치수 1회를 시간 정해서 풀기(약 4분 30초 정도)

- 4분 30초내에 푸는 것이 처음에는 벅할 수 있지만 하다보면 점점 속도가 붙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1회 푸는데 7분정도 걸렸었지만 지금은 4분 내외로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매 3비 or 민경채 1회

- 매 3비는 오른쪽 상단부분에 권장 풀이 시간이 적혀 있는데, 이 시간에서 2~3분정도 줄인 시간을 기준으로 풀었습니다. ex) 권장 풀이시간 : 19분 30초 → 풀이시간 : 16분 30초

- 민경채는 매3비가 끝나고 난 후 풀었습니다. 하루에 12~13문제를 15~16분 내에 풀었습니다.

- 민경채는 난이도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푸는 것을 목적으로 잡았습니다.

- 그리고 프린트해서 푸는 것도 좋지만 해설이 들어있는 책을 구매해서 푸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는 UNION 민간경력자 PSAT 기출문제집을 구매해서 풀었습니다.

3. 박문각 NCS 문제해결·자원관리능력 + 수리능력 각 15문씩

- 각 책에서 15문제씩 20분 내에 풀었습니다.
- 이 책들을 다 완독하고 나면 '에듀윌 수리, 문제해결능력 끝장 마스터(수문끝)'을 풀거나 '민경재 자료해석, 상황판단'으로 넘어갔습니다.
- 특히 저는 수문끝을 4번정도 다시 풀었는데, 그 이유는 똑같은 문제를 다시 풀어도 풀이가 달라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4. 봉투모의고사

- 봉투모의고사는 시험 시즌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주 3회씩 풀었습니다.
- 시간은 시험시간에서 10분을 빼고 풀었습니다.
- eg) 시험시간 : 60분 → 풀이시간 : 50분, 시험시간 : 70분 → 풀이시간 : 60분
- 다양한 출판사에서 봉투모의고사를 만드는데 해커스, 위포트, 에듀윌은 기본으로 풀고, 시간이 남으면 박문각, 예문사, 시대고시 등등을 풀었습니다.
- 그리고 저는 봉모든 실제 시험이던 정해진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다 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문제를 보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문제, 단순 계산이지만 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건너뛰고,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봄으로써, 최대한 많은 수의 문제를 푸려고 합니다.

5. 숙제

- 숙제는 당일 진도 나간 모든 문제들 채점, 풀이하는 것입니다.
- 이 때, 시간 내에 풀지 못한 문제, 다음시간에 스터디 원들에게 물어볼 문제들을 확인합니다.
- 그리고 다음시간에 서로 궁금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서 각자의 풀이방법을 공유합니다.

6. 오답노트(개인적)

- 저는 봉모 풀이 후 꼭 오답노트를 작성했습니다.
- 오답노트에는 내가 틀렸던 문제, 풀이시간이 오래 걸렸던 문제, 여러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왜 맞았는지 모르겠는 문제 등등..... 확실하게 풀 문제 외에 모든 문제를 적었습니다.
- 문제는 자신만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적고 난 뒤풀이를 최대한 상세하게, 나중에 보더라도 한 번에 이해 할 수 있도록 적고자 노력했습니다.

〈전공공부〉

전산직, ICT직은 소수를 뽑기 때문에 정보가 많이 없어서 전공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는 정보처리기사 수준을 넘는 문제들, 지엽적인 문제도 나와 더욱 전공시험부분이 어려워지고,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 역시 전공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보통 정보처리기사 기출을 많이 푸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9급 7급 전산직 기출문제도 함께 병행하며 풀었습니다.

1. 정보처리기사 기출

- 정보처리기사 기출을 풀고, 오답노트를 꼭 작성했습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이론을 다시 공부했습니다.

2. 9급 7급 전산직 기출 문제 풀이

- 저는 탐스팟에서 나온 '2020 컴퓨터 일반 기출문제집'을 구매해 풀었습니다.
- 제가 푼 책의 경우 컴퓨터구조,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자료구조, 소프트웨어공학, 데이터 통신, 프로그래밍 언어론 등에 대한 문제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3번은 무조건 전 과목을 다 풀었고, 4회독 차부터는 자주 틀리는 과목을 집중적으로 풀었습니다.
- 그리고 시험 시즌에는 지원하는 기업의 공고문을 통해 어떤 과목이 출제되는지 파악 후, 그 과목만 집중적으로 풀었습니다.

3. 정보보안

- 최근에 정보보안 부분에서도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 저는 학교 다닐 때 정보보안 관련 과목도 수강했었고, 정보보안기사 필기 부분에 합격을 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있었습니다.
- 그래서 보안 이론 공부는 기사 자격증 준비 할 때 만들었던 단권화 노트를 이용했습니다.
- 만약에 정보보안 부분에 지식이 전혀 없다면 기사 기출보다는 공무원 기출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직까지 공기업 전공시험의 정보보안 과목은 기사 수준으로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공무원 기출문제집이 더 효율적이라 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비전예뎬데인먼트의 2020 9급·7급 전산직 정보보호론 기출문제집을 풀었습니다.
- 참고로 저는 정보보안기사자격증을 공부할 때 '알기사 정보보안기사'로 공부했습니다.

〈자기소개서 & 면접〉

자기소개서 첨삭과 1:1 면접 컨설팅 또는 관련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꼭 백도 1층에 있는 일자리 센터를 가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첫 면접을 준비하면서 일자리 센터를 알게 된 이후로 그곳에서 취업에 성공할 때 까지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기소개서 첨삭은 물론이고, 면접이 잡힐 때마다 일자리 센터에 찾아가 해당기업 면접기출질문, 자기소개서 기반 예상 면접 질문, 1:1 모의면접, 때로는 해당기업 현업 분들과 연결해주셔서 생생한 기업정보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공채 시즌이 되면 주말을 이용하여 공공기관 모의 면접 컨설팅도 진행하기 때문에 일자리센터를 자주 애용하시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기업의 경우 면접 일정이 잡히면 상대적으로 사기업에 비해 면접스터디를 만드는 것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면접스터디를 하시길 바랍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소개한다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생각한 것만큼 잘 안되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면접스터디에 참석해서 연습을 한다면 실전에서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어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전에서는 약간 뻔뻔한 마음가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뻔뻔하다는 표현이 이기적이고, 엄치없이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당당하고, 솔직하게 행동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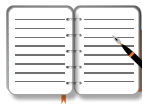
저는 취준기간 동안 약 10번정도 면접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면접초기에서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나를 포장하려고 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많은 면접을 보면서 점점 개선되었고, 가장 최근에 보았던 한전 KDN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면접에서는 그저 나의 '좋은 점' 만 보여주려고 하는 것 보다 '부족한 점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면접장에 들어가니 면접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웃기도 하고, 면접관들의 엉뚱한 질문에도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많은 기업에서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본인의 견해를 묻거나 회사에 발전방향에 묻는 문항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도 삼성, 포스코, 기술보증기금, SGI서울보증보험등등에서 위와 관련된 질문들이 자기소개서에 나왔는데, 저는 이런 질문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을 활용하여 답변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은 국가에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도 높고, 평소에는 알지 못했던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인 AI, IoT, 빅데이터, 스마트시티, 드론, 신재생에너지 등등의 산업동향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고, 관련 정책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등 부품, 장비 관련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식들은 한번 파악하고 나면 자기소개서 더 나아가 면접에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자기소개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가. (지원포부) LH 경영목표 중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으며 입사 후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지, 본인의 주요 직무 역량 및 강점을 기반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균형발전'의 구현 기여하겠습니다. 학부 시절 스마트빌딩 재난 관련 기술 시장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외국의 스마트 시티 동향을 접하게 되었고, 이런 부분이 우리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도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 스마트 시티 구현 관련 기술 등을 빠르게 보급시켜 윤택한 도시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딥러닝을 이용한 미세먼지 농도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DB, 딥러닝 관련 지식을 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진행되는 'MPP Data Science 과정'을 통해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에 관한 수업을 들으며 최신 IT 기술뿐만 아니라 파이썬에 대해서도 학습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 IT 기술을 도입해 업무프로세스 개선 부분에 기여하겠습니다.

나. (경험 및 경력활동) 본인의 학교생활 또는 사회생활 중 전문성 향상 또는 역량 개발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경험, 경력, 활동을 먼저 기술하고, 귀하가 지원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떻게 활용(도움)이 될 수 있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딥러닝을 이용한 미세먼지 농도예측시스템

약 3개월 동안 '딥러닝을 이용한 미세먼지 농도예측시스템' 이란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필요한 데이터 값을 수집하고자 DB 테이블 및 라즈베리 파이와 다양한 센서들이 문제없이 통신하면서 데이터값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통신환경까지 구축했습니다. 또,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예측된 미세먼지 농도 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웹페이지까지 서비스했습니다.

마감기한까지 프로젝트를 완성하고자 업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간트차트를 만들었습니다. 또,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팀원들과 코드 피드백해주기, 관련 자료 찾아주기 등의 도움 주며 해결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배웠던 IT 관련 지식 및 프로젝트 관리 방법, 소통방법뿐만 아니라 데이터관리 및 딥러닝 지식을 바탕으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IT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근무문화를 스마트하게 바꾸고 싶습니다.

다. (직업기초능력 : 의사소통) 본인 보다 나이나 경험이 아주 많은 사람에게 내 의견을 전달하고, 소통했던 경험을 아래 순서에 따라 기술해 주십시오.(가족 제외)

- ① 당시 의견 전달 및 소통해야 했던 상황과 이유에 대해 기술
- ② 사용한 방법과 그 방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기술

맞춤형 소통을 통해 업무효율을 높이다

6개월 동안 도서관에서 학위논문 URL 데이터를 정리하는 일을 맡았었습니다.

이 업무는 단순 반복 작업으로 기존의 방식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시간 대비 효율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이용한 웹크롤링을 적용하면 진행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서 선생님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꼼꼼히 확인하시는 선생님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 전공자인 선생님께서도 이해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해 크롤링의 원리를 알려드렸습니다. 함께 크롤링할 데이터를 넣어보면 서, 이 기술이 속도도 빠르고 뿐만 아니라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시켜드렸습니다. 중간중간 선생님께서 궁금

해하시는 부분에 답변해드리며 이 기술을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이 했다면 몇 달 이상 걸릴 작업을 파이썬을 이용한 웹크롤링을 통해 약 34,000건의 학위논문 URL 정리를 이틀 만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소통방식을 통해 제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직업기초능력 : 대인관계) 주변 지인과 원만하지 못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례를 아래 순서에 따라 기술해 주십시오.(가족 제외)

- 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평소 견지하고 있는 원칙이나 좌우명을 기술
- ② 주변 지인과의 평소 관계를 간단하게 기술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소홀해졌던 계기 또는 이유에 대해 기술
- ③ 원만하지 못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본인이 취한 노력 및 성과에 대해 기술

서로에 대한 이해를 통한 관계회복

상대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대화를 통해 회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졸업프로젝트를 하면서 한 친구의 직설적인 언행 때문에 상처를 받아 관계가 소홀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팀 분위기도 저하되어 일의 진행 역시 더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정말 상처를 주려고 한 말인지, 팀 목표와 관련된 조연인지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때 당시 예민해져 있던 탓에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아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친구 역시 너무 직설적으로 말해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였습니다. 또, 이런 오해가 생긴 이유가 서로에 대한 이해부족이라 생각되어, 팀원들과 친해지기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팀 회의시간에 간단한 다과를 먹으며, 프로젝트 관련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적인 이야기도 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돈독해진 관계를 바탕으로 마지막에는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경험을 계기로 좋은 인간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대화의 가장 중요하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팀의 목표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마. (직업기초능력 : 공동체윤리) 지원자 개인의 편의와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고민했던 경험을 아래 순서에 따라 소개해 주십시오.

- ① 고민되었던 상황을 기술
- ② 당시 대처 방안과 그 이유를 기술

관습을 고치다

음악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동기들의 지각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항상 정해져 있는 모임 시간이 있음에도 동기들은 친하다는 이유로 지각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이런 분위기에 편승했었을 수도 있었지만, 약속 시각을 지켜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동아리 특성상 공연준비 등의 단체행사가 많고, 이런 행사는 한 명이라도 늦으면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바꾸고자 첫 번째로 미리 동아리 일정을 알려줌으로써 개인일정과 동아리 일정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동아리 전체 재정비를 위해 이와 관련된 규칙을 만들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 반 정도를 하니 지각률을 줄일 수 있었고, 동기들에게 '꼼꼼하게 챙겨주어서 고맙다'라는 말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입사지원경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산직)

가. 인·적성 검사 후기

2020년 하반기에 시험을 봤습니다. 80문제(전공30+NCS50)를 80분 동안 푸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전공문제가 어려웠습니다. 컴퓨터 구조와 같은 기초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와서 탄탄한 기본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NCS는 시중의 봉투모의고사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전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80분 80문제여서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였지만, 어려운 문제는 일단 다 넘기면서 모든 문제를 끝까지 보면서 시간 내에 풀 수 있을 것 같은 문제는 모두 풀었습니다. 그리고 풀지 못한 7~8문제 정도는 찍었습니다.

나. 면접후기

필기 합격 후 시면접을 봅니다. 시면접은 실제 대면면접 질문을 만들기 위해 사용한다고 했는데, 사용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시면접은 모든 질문이 상황면이었습니다.

면접스터디를 할 때 다른 분들께도 물어보니 상황면접 질문이 지배적 이었고 영어질문을 받은 분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면접은 딱 한 번만 이루어졌고, 최종 결과 역시 필기성적 40% + 면접성적 60%로 도출되었습니다. 면접은 코엑스에서 진행되었는데, 각 사람마다 면접시간 스케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대기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본인의 시간이 되면 안내요원을 따라 면접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총 4명의 면접관과 1명의 면접자로 구성되고 20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진행되었고, 신원조회를 위해서 면접자와 면접관 두 쪽 따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1분 자기소개를 하고 인성+직무관련 질문을 받게 됩니다. 면접관이 4명이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면접위원장, 인성면접질문 담당 면접관, 직무+전공 관련 면접관 2명(한분은 현업분, 또 다른 분은 교수님 같았습니다)으로 구성한 것 같습니다.

내인재상 관련 질문 + 인성관련 질문을 다수 받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이 '본인의 역량 중 가장 부족한 부분

이 어느 것이라 생각되는가?’ 이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적극적인 공감능력이 부족해서 타인의 기쁜 일이나 슬픈 일에 크게 호응을 하는 것을 잘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꼬리질문으로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가 들어왔었고 ‘적극적 공감능력을 보이는 친구를 보고 많이 배우려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LH에서 업무를 할 때 그런 점을 보완하면 훌륭한 사원이 될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요즘 이슈인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관련 질문도 받았습니다. 두 기술의 개념 설명, 이런 기술이 왜 필요한지, 빅데이터와 클라우드가 LH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등등 모든 질문의 방향성이 LH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말 많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다 알고 면접장에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한 사업 분야를 선택해 그 부분을 상세히 공부하고, 나머지는 간단하게만 학습하는 식으로 면접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TLO 때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빌딩 관련 시장 조사와 기술들을 학습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맞춰서 면접을 준비했었습니다.

또, 위포트에서 나오는 ‘기업핵심분석’을 구매해서 한번 보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기업의 전반적인 사업부분, 현재 주력하고 있는 사업, 최신이슈들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